

보도시점 2024. 2. 21.(수) 배포 2024. 2. 21.(수)

이기철 재외동포청장, 한-베트남 자녀 모국방문활동 격려

- 한국문화체험단 20명, 인천 송도 청사에 초청해 만남 가져
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.21일 베트남 하노이의 ‘한베가족협회’ 소속 자녀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체험단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청사로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.
 - 한베가족협회는 한베가족 2세와 인솔자 등 20명으로 한국문화 체험단을 꾸렸고, 20~24일 5일간 일정으로 방한했다.
 - ※ (단체소개) 한베가족협회는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-베트남 다문화 가족모임이다.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에 2,200여 가구, 호치민 등 남부지역에 4,000여 가구 규모의 한베가정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. 주요 사업은 한베가족2세 한국방문사업을 비롯해 국내 지자체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, 하나유치원 운영 등이 있다.
- 이기철 청장은 체험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“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, 한글학교 지원, 재외동포 장학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”며 “이는 재외동포 차세대와 2, 3세 자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”이라고 설명했다.
 - 이어 “이번 한국 방문 한-베트남 자녀를 포함해 전 세계 거주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모두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”이라며 “앞으로 우리 청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여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- 이 청장은 또 “이번 방문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해 정체성을 함양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”며 “자녀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- 이 청장은 체험단과 함께 기념 촬영, 기념품 증정 등의 시간도 가졌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이선호	032-585-3174